광주시, 로봇·스마트전자 등 신성장 동력 육성

남구 도시첨단산단 3000억 들여 의료로봇산업 중심지로
1조4000억 투입 남구 일원에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첨단 3단지에 1조 들여 4차산업혁명 이끌 AI 창업단지

광주시가 '지능형 고부가가치 로봇산업' '스마트 전기전자산업' 등 주요 신성장 동력사업을 올해 집중 추진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가선도 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다.

7일 시에 따르면 현재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사업은 '지능형 고부가가치 로봇산업'이다. 지난 2016년 10월 전남대 첨단산업캠퍼스에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를 마련한 가운데 관련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수술로봇제어기술을 비롯해 재활용 케이블로봇, 장기치료용 미니로봇, 세포조작용 로봇, 뇌수술 로봇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센터는 이미 연구개발을 넘어 원천기술을 기업들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시는 앞으로 국비 1500억원 등 3000억원을 투입해 남구 도시첨단산단에 10만㎡ 규모의 클러스터를 조성, 광주를 마이크로 의료로봇산업의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다.

'스마트 전기전자산업'은 지난해 국회에서 '에너지산업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 착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남구 일원 330만㎡ 부지에는 국비 4000억원 등 1조4000억원을 들여 에너지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산업단지, 교육단지, 연구단지 등으로 구성된 산학연 클러스터는 2018년부터 10년간 조성돼 진곡산단, 빛그린산단, 도시첨단산단, 빛가람공동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에너지밸리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2018년부터 5년간 각각 2800억원과 2000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산업단지와 직류(DC) 기반 에너지신산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인공지능 기술 융합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인공지능 기술 융합산업 중 하나인 AI 중심 창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지원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설립 및 기업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업은 2018년부터 10년간 국비 7000억원 등 1조원을 들여 첨단3단지 연구교육단지에 70만㎡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지에는 인공지능 캠퍼스, 인공지능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 시험·인증플랫폼 등을 갖춘 국립인공지능연구원, 기업지원 및 창업랩, 해외 수출지원 시설 등이 들어서며 사업 시행은 광주과기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맡는다.

'생체의료용 소재부품 산업', '광융합기술 원천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사업'등의 육성에도 공을 들인다. 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산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개발 강화 및 전문 인재 육성으로 국가적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경제부시장 박병규 특보 내정

'광주형 일자리' 정책 성공 위해 낙점

윤장현 광주시장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박병규 일자리 정책특보를 경제부시장으로 내정했다. 시 조직 내부 및 측근의 반발 및 반대, 경력 및 절차상의 문제 등에도 낙점된 박 특보가 윤 시장의 바람대로 불완전한 광주형 일자리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7일 "개방형 1급 공모를 거쳐 박 특보를 경제부시장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박 특보와 전직 기업인, 대학 교수 등 3명이 응모했고, 윤 시장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박 특보를 선택했다.

윤 시장은 이례적으로 '박병규 경제부시장 내정에 부쳐'라는 제목의 A4 용지 2장 분량의 별도의 입장문 통해 "30여년간 노동현장에 몸담으면서 노조위원장을 세 번이나 역임한 사람을 행정 안으로 들이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지만,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 시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고, 그 중심에 광주형 일자리가 있고, 실체론과 뜬구름론으로 설왕설래했던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대안이 됐다"며 그 진두에 박 특보가 있었고, 신임 박 부시장이 앞으로도 선도에서 이끌 것임을 공식화했다. 시 조직은 물론 측근들마저도 반대한 박 특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이 같은 윤 시장의 정면 돌파에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모 자격 기준에 '경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포함시켰지만 과연 노동 분야에 특화된 인사가 경제부시장으로 적절한 지 논란이다. 공직사회 내의 반발로 부시장으로서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것도 문제제기 되고 있다.

경제부시장직은 광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국비예산 확보나 중앙 부처, 국회와의 정책 조율 등 중책을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한달 앞당겨 9월 개막

'2018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가 당초 계획보다 한달가량 앞당겨져 9월1일 개막한다. 이로 인해 개최 시기가 광주비엔날레와 겹쳐 광주·전남에서 동시에 열리는 대형 국제 미술행사가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018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를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전남에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국제미술행사로, '전통 수묵의 재발견'과 '현대 수묵의 재창조'를 선보인다.

수묵비엔날레 개막은 당초 계획보다 한달이상 앞당겨졌다. 이로 인해 9월7일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 개최 시기(9월7일~11월11일)와 겹치게 됐다.

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은 지난해 치른 '수묵 프레비엔날레' 평가때 개최 시기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와 개막을 9월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전시행사 장소가 목포와 진도 일원으로 넓어 관람 동선상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데, 바다를 끼고 있는 지형 특성상 10~11월이면 강한 바닷바람에 의한 추위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패키지 미술여행' 코스를 개발하면 수도권·영남권·충청권 단체 관람객 유치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국제행사로 자리잡은 광주비엔날레와 경쟁하듯 동시 개최하는 것은 자칫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를 광주비엔날레의 들러리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6일 오후 광주시 북구 한 영화관에서 강기정(앞줄 왼쪽부터) 전 국회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이 영화 '1987' 관람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정치'하자"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영화관에서 무슨 얘기 나눴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강기정(53) 전 의원과 민형배(56) 광산구청장, 최영호(52) 남구청장이 1987년 6월 항쟁을 주제로 한 영화 '1987'을 함께 관람한 뒤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고 입을 모았다.

강 전 의원은 1985년 전남대 삼민투(민족·민중·민주) 위원장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형을 선고받았다. 최 구청장은 당시 민주화 투쟁으로 구속·수감됐었다. 민 구청장은 전남대 민주동우회 회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한 인연이 있다. 지난 6일 전남대 후문 메가박스에서 영화 '1987'을 나란히 관람한 뒤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은 치열했던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국민의 목숨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자"는 결의를 했다.

강 전 의원은 "국민이 최루탄 맞아가며 지킨 민주주의이며, 촛불로 다시 되찾은 민주주의다"면서 "민주화운동을 함께 한 동지들이 나란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만큼, '정치를 더욱 잘하자'는 결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소개했다.

민 구청장도 "당시 감옥에 투옥되는 선·후배도 많았고, 현장에서 직접 6·10 항쟁을 함께했었다"면서 "세 후보가 공동대응 할 사안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최 구청장은 "박종철 열사가 숨진 지 5일 만에 교도소에 수감돼 고초를 겪었다"고 회상한 뒤 "옛 동지들과 함께 모여 영화를 보면서 정치인으로 느낀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33억 들여 광주FC 전용 연습구장 오늘 착공

옛 염주 양궁장 부지에
천연·인조잔디구장 2면

광주시가 33억원을 들여 8일 광주FC 전용 연습구장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전용 연습구장이 없던 광주FC는 그동안 목포 축구센터를 빌려 훈련을 하면서 피로 누적 등 부작용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전용 연습구장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광주시는 옛 염주 양궁장 부지에 광주FC 연습구장을 조성하는 건립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난해 10월 설계용역을 실시했다. 이어 12월에는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준비를 해왔다.

연습구장은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1면씩 총 2면의 국제규격 축구장으로 건립된다. 또 선수 휴게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시는 1단계로 부지, 천연잔디 구장 등을 조성하고 2단계로 인조잔디구장 및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 올해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전용 연습구장이 마련되면 FC선수는 물론 유소년 축구단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의 유망선수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동시에 월드컵 보조경기장을 개보수해 축구전용구장으로 건립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개보수는 올해 상반기 중 설계용역을 실시해 2019년 시즌 개막 전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이 전용구장에는 가변형 관람석 1만석과 선수숙소 등이 설치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비 월 13만원 지원

오는 5월부터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지원비가 지급된다.

이는 최근 제정한 '전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전국 최초 시행이다.

전남도는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사망자·행방불명자·상이자·해직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한다. 지원액은 월 13만원이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수급자를 선정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 바꿔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타,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싸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의, 새로운 발명
싸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YHB ECO / 주식회사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 주 공 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 산 공 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제동) Tel.063-835-4771